붙 임 북한산도봉사무소 자유학기제 표준계획서

북한산도봉사무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1. 목적 및 배경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68-2)로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 청소년들의 올바른 환경의식 제고, 국립공원 및 환경 분야 직업에 대한 소질·적성 개발에 기여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숲학교( ), 자유학기제(○), 주니어레인저( )

○ 프로그램명 : 숲에서 job는 꿈 이야기

○ 대 상 : 중학생 30명 기준

○ 운영기간 : 2020. 3. ~ 2020. 11.

○ 운영형태 : 당일형, 2시간/회

○ 장 소 : 원도봉자연관찰로, 도봉자연관찰로 일대

○ 주요내용 : 국립공원의 이해, 국립공원 직업소개 및 현장체험(동물학자 등 7개 주제)

○ 소요예산 : 6백만원

○ 참 가 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지역 교육청, 교육기관 및 학교 공문 발송, 보도자료 제공, 포스터 제작하여 SNS 게시

○ 참가자 접수 방법 : ‘꿈길’(www.ggoomgil.go.kr)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보도자료 제공(1회), SNS 홍보(운영기간 중 월 1회)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사무소 자체 설문지 제작·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

○ 효과성 조사 : 운영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국립공원 및 직업에 대한 이해도 변화 결과 도출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2. 현황사진 2장 원본

첨부1 :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북한산도봉사무소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숲에서 job는 꿈 이야기'



운영장소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운영시간** 3월~12월 연중운영
참가대상 중학생 **참가비용** 무료
신청방법 '꿈길'(www.ggoomgil.go.kr)사이트 온라인 접수 / 유선 접수(031-828-8041~4)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제2019-021호 환경부 인증 제2018-021호

국립공원녹색건축가

나는야 국립공원 녹색건축가!!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직업체험에 대한 기대 및 동기유발을 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직업소개를 통해 건축과 환경관련 직업에 대한 식견을 넓혀봅니다.

국립공원동물학자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고 체험하는 참여형 생태관광입니다.
국립공원 내 살고 있는 동물들을 지키고 연구하는 동물학자가 하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왜 야생동물을 지켜야 하는지와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국립공원식물학자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식물학자!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 파악하고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참여형 생태관광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식물학자는 조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식물을 찾아내서 복원도 함께 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국립공원역사학자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문화자원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 후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국립공원 역사학자의 직업가치를 느껴봅니다.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

청소년들에게 특별사법경찰을 소개하여 국립공원 내 위법행위의 단속이 필요함을 이해시키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 하게 합니다.

국립공원안전관리전문가

여러분을 지켜요!!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
국립공원 안전관리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알아보고, 안전관리 업무체험을 통해 국립공원의 특수성과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의 직업가치를 느껴 봅니다.

국립공원환경교육전문가

지구 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미래세대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자연자원이 살아 있는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키도록 합니다.

자유학기제

숲에서 job는 꿈 이야기

활동장소	북한산국립공원 자연관찰로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학생
참가인원	30명/해설사

활동목표	•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환경의식을 확립한다. • 국립공원의 직업소개를 통해 국립공원 및 환경 분야 직업에 대한 식견을 넓힌다.
준비물	• (공통) 국립공원 영상 및 ppt, 빔프로젝트, 스크린 • 주제 별 준비물 (녹색건축가) 도면, 필기구, 건축모형 재료 등 (동물학자) 동물흔적, 야장, 필기구 등 (식물학자) 자연관찰로 지도, 야장, 필기구 등 (역사학자)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교구재 등 (특별사법경찰) 자연공원법 책, 모자, 단속용지 등 (안전관리전문가) 등짐펌프, 매듭, 접이식 들것 등 (환경교육전문가)도화지, 색연필, 싸인펜, 돗자리 등
유의사항	• PPT 환경 조성 점검, 기본 응급 용품 준비, 현장 사전 모니터링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인사 나누기**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숲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지침 전달 • **아름다운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 – 아름다운 국립공원(동영상)과 국립공원의 가치 – 국립공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녹색건축가) • **국립공원의 친환경 건축 PPT(30분)** – 국립공원 친환경 건축물의 역할 및 기능 알아보기 – 탐방지원센터, 옥상녹화, 사무소, 화장실 건축방법 알아보기 – 나는야, 국립공원 건축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녹색 건축 이야기  건축 설계 및 사례  시설물 안전 점검 • **이동 또는 쉬어가기(10분)**	100분

- **나만의 집(건축) 만들기(60분)**
  - 재료 배분 및 만드는 방법 소개
  - 만든 후 느낌 공유하기


만들기 설명


건축 체험


완성물

(동물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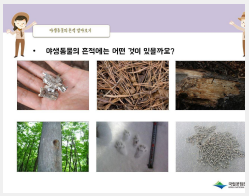
- **동물을 지켜줘!! 국립공원 동물학자 PPT(30분)**
  - 야생동물의 가치
  - 동물학자가 하는 일
  - 동물학자가 가져야 하는 역량


국립공원 동물학자란?


유명한 동물학자


동물학자가 하는 일

- **이동 또는 쉬어가기(10분)**
- **체험활동(60분)**
  - PPT를 통해 동물흔적의 종류와 동물흔적 확인
  - 포인트마다 숨겨져 있는 동물흔적을 찾아 야장에 작성
  - 숨겨진 동물흔적과 그 외 찾은 흔적 확인하기



야생동물의 흔적


야외 체험 활동


흔적 확인하기

(식물학자)

- **국립공원 식물학자 PPT (30분)**
  - 식물자원의 중요성과 역할
  - 식물자원조사의 목적과 방법
  - 국립공원 식물학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하는 일



식물을 연구하는 까닭은?



국립공원
식물자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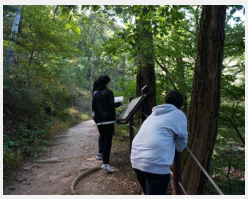


국립공원의
식물복원사업

- **이동 또는 쉬어가기(10분)**
- **식물자원조사 체험활동(60분)**
  - 자연관찰로 식물 생태지도 만들기(모야모앱 활용)
  - 자연관찰로의 식물자원 현황과 대표식물 조사



원도봉 자연관찰로 안내



생태지도 작성하기



조사한 식물 공유하기

(역사학자)

- **특별한 시간여행, 국립공원 역사학자 PPT(30분)**
  - 국립공원 내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를 알아보기
  - 국립공원 직원인 역사학자의 인터뷰 듣기
  -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지구의 문화재 알아보기



국립공원의
역사학자란?



직원의 인터뷰 듣기



도봉산 문화재
알아보기

- **이동 또는 쉬어가기(10분)**
- **체험활동(60분)**
  -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지구에 있는 문화재(바위글씨)를 알아보고,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며 해결방안 토론해 보기
  - 인원이 적을 경우는 탁본 체험, 인원이 많을 경우는 물붓글씨 쓰기 또는 유물복원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체험 해 보기



문화재 탐방을 떠나요



바위글씨 알아보기



야외 체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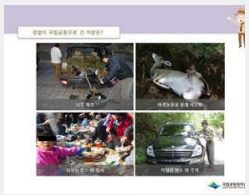
(특별사법경찰)

- **국립공원 함께 지켜요!! 특별사법경찰 PPT(30분)**
  - 국립공원 자연보전의 필요성

- 특별사법경찰권 시행 사례
- OX퀴즈를 통한 자연공원법 쉽게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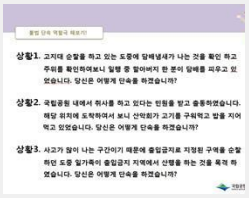

특별사법경찰 이란?


직원의 인터뷰 듣기


사례 알아보기

- **이동 또는 쉬어가기(10분)**
- **체험활동(60분)**

- 역할 정하기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자, 특별사법경찰)
- 역할극을 통한 국립공원 특별사법 경찰 체험



단속 상황


역할극 하기


단속용지 적어보기

(안전관리전문가)

- **여러분을 지켜요!!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 PPT(30분)**

-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의 필요성
- 안전관리전문가 활약상 동영상 시청
-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대처방법 사례 알아보기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가
활약상 동영상 시청


사례 알아보기

- **이동 또는 쉬어가기(10분)**
- **체험활동(60분)**

- 역할 정하기 (환자, 안전관리전문가)
- 역할극을 통한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 체험
- 산속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간접경험(화재, 응급처치, 구조)
- 산악구조시 필요한 유용한 로프사용법 교육


역할극을 통한 체험


등짐펌프 쏴보기


유용한 로프사용법 교육

(환경교육전문가)

	• **자연과 사람의 연결, 환경교육전문가 PPT(30분)** – 환경교육전문가에 대한 이해 –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가 하는 일 –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해설 동영상 감상    환경교육전문가란? 자연환경해설사란? 자연해설 동영상 감상 • **이동 또는 쉬어가기(10분)** • **체험활동(60분)** – 환경교육전문가가 되어 환경보호 캠페인 포스터 만들기 – 조별로 포스터 내용 발표하기 및 전시    포스터 만들기 내용 발표하기 포스터 전시	
마무리 (생각나누기)	• 학습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 • 체험 소감 공유하기	10분

▢ 프로그램 시나리오 (직업군별)

○ 녹색건축가

녹색건축가 시나리오	[첫 인사 및 일정 공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와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 약 2시간 가량 국립공원 녹색건축가 라는 직업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녹색도화지에 설계도를 그리는 녹색건축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축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죠. 그럼 녹색도화지에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 그럼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해요. 질문을 잘 듣고 '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Yes or no로 대답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나는 미래에 내가 꾸민 집을 갖고 싶다! Yes or no!

Yes! 미래에 나만의 집을 가지고 있을 친구들이 정말 많군요!
두 번째, 나는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Yes or no!
Yes! 오 역시 뭔가 다들 재능이 있어보였어요.
세 번째, 나는 어림짐작으로 길이를 잘 알아 맞힌다. Yes or no!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고장 나거나 부서진 물건을 잘 고친다.
이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했고, 관심이 있다면 우린 모두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긴 어디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올라오면서 볼 수 있었던 시설물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는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지원센터 입니다.
그럼 이 사진은요? 네 계단이죠. 우리는 이런 계단과 같이 탐방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다듬어 놓았는데, 이런 길을 탐방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렇죠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지판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은? 그렇죠 화장실이죠.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알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건 바로 국립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쯤은 봤던 국립공원의 시설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들이 만들었습니다.
녹색건축가가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볼까요?
(뉴스내용...다시 한번씩 설명해 주면서 시청)

이렇게 국민이 보고 싶은 경관이나, 가고 싶지만, 위험해서 가지 못했던 곳을 개방하기 위해선 많은 고민과 토론과정이 있었겠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을 최대한 배려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입니다.
사진 속 직원 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방금 뉴스에서 봤던 녹색건축가 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조사하고 CAD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렇게 설계도를 그립니다.아까 CAD라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면 이런 설계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토대로 시설을 조성합니다.
왼쪽이 실제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 오른쪽은 조감도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전체적인 모습을 구상해보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설계도와 조감도를 통해서 이런 야영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건축가는 야영장,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립공원사무소, 주차장, 여러분이 체험 온 장소, 북한산생태탐방원,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등 깊은 산속의 대피소까지 이렇게 국립공원의 건축가는 다양한 시설물들을 설계하고 만든답니다. 짜잔 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어떤 시설물을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탐방로입니다. 녹색건축가는 아름다운 경관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녹색건축가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국립공원의 시설물들을 짓는지 살펴봤는데요.
녹색건축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네, 녹색건축가는 설계를 하고 네 조감도도 그려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면 모든 일이 끝난 걸까요? 아니죠 완전완전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지어져 있는 공원시설물들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겠죠.
시설을 설치하고 땡 끝!!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안전상태는 어떠한지 꾸준히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국립공원의 시

설물을 설계할 때, 녹색건축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손들고 정답을 맞춰볼까요?
네 맞아요! 국립공원 건축가는 시설물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자연을 생각합니다!
정답을 맞춘 순발력 있는 친구에겐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국립공원 건축가가 어떻게 자연을 배려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 일반적인 건축시설물과 국립공원의 시설물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소재가 달라요. 일반건축물은 시멘트나 철근 같은 소재를 사용하지만 국립공원 시설물은 나무나 돌과 같은 자연물 소재를 이용해요.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여기에는 녹색건축가의 어떤 배려가 숨어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탐방로를 설치하려는데 나무가 위치해있다고 자르고 우리의 탐방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나무를 피해서 시설물을 짓도록 설계했죠. 이곳은 치악산국립공원의 야영장인데요. 원래 언덕이었던 부분을 그대로 살려 다목적공연장을 만들었고 다음 사진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배려가 숨어있는지 맞혀볼까요?
네, 보통은 머리 위로 높이 설치하는 조명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무도 저녁에 잘 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위에있던 조명을 아래로 가져온 거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과 같이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곡선을 활용하기도 하죠. 자 여기에는 자연에 대한 건축가의 어떤 배려가 숨어있을까요? 찾았나요?
바로 이 도로 위의 다리가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들이 동물들을 생각해서 만든 생태이동통로에요. 하나였던 산을 뚫어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동물들이 지나다니던 길이 없어진 거죠.
산에서 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동물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로를 건너게 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점을 모니터링 하여, 동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고마운 시설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녹색건축가의 배려와 고민으로 만들어진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멧돼지 사진이 찍히기도 했어요.
멧돼지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앞으로 교통사고 즉, 로드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는 88년도 소백산의 어느 봉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니고 있죠! 그래서 땅도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그래서 또 녹색건축가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훼손을 막고 사람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탐방로를 만들고 다른 길로 건너갈 수 없게끔 난간을 했고, 사람들이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니까 훼손됐던 식물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자연이 훼손만 될까요? 이 사진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예전엔 군사시설로 만들었지만 이젠 필요가 없어진 철조망을 철거하기도 하고 더 이상의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돌계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열에너지, 채광시스템을 이용하여 친환경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등 이렇게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는 자연을 배려한답니다.
자, 깜짝 퀴즈 입니다. 우리 국립공원 녹색건축가는 또 무엇을 생각할까요?
네 그렇죠. 사람을 생각합니다.국립공원 녹색건축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연을 거닐 수 있도록 탐방로를 설치하구요

개수대의 높이를 달리해서, 어린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분리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영장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국립공원 건축가는 위험해 보이는 곳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탐방로를 설치합니다. 이처럼 국립공원 녹색건축가는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자연, 그 둘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역할을 잘 해주는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가 있음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국립공원 건축가!
친구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못 이겨 이렇게 직접 만나러 왔다는데요.
우리 국립공원의 녹색건축가를 만나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국립공원 건축가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관련학과의 전공지식이 필요하겠죠? 또 공간지각능력과 미술감각 등의 능력, 설계도는 필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CAD와 같은 프로그램도 잘 다룰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해서 멋진 국립공원 건축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체험활동](재료를 나눠주며) 나만의 녹색건축집(저금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요소를 고민해서 나만의 집을 만들어볼께요.
(만들기 체험 종료 후)
[마무리]
오늘 처음에 보여주었다시피 국립공원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르켜 모두 레인저라고 부르구요, 레인저는 전세계적으로 국립공원 관리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갖춰야할 덕목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볼까요?
레인저는 맑은 영혼과 강한체력으로 대자연을 누비며 국토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우리 10년 후에 동료로 만나는 친구가 있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 현황사진

	
녹색건축가 알아보기	녹색건축가 실습 (체험)

○ 동물학자

〔도 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먼저 국립공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 곳을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을 국립공원이라 합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친구들이 선택한 동물학자에 대해 알아보고 실내에서 수업이 끝나면 야외에 나가서 체험도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전 개]

자 그럼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해요.
질문을 잘 듣고 '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손을 들어주세요.
첫번째, 나는 동물을 좋아하고 잘 돌본다?
두번째, 나는 동물을 관찰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한참 본 적이 있다?
세번째, 나는 동물이 갖는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네번째, 나는 환경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중에 하나라도 손을 들었고, 관심이 있다면 우린 모두 동물학자가 될 수 있어요.

동물학자 시나리오

이 분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제인구달)네 맞아요. 20대 때부터 탄자니아 숲에서 먹고 자고 텐트를 치고 지내며 침팬지를 연구와 보호에 힘을 쓰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동물학자에요. 동물학자는 이렇게 동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다면 동물학자들은 왜 야생동물을 조사하고 연구할까요?
야생동물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생태적 가치인데요. 여러분들 먹이 피라미드 알죠? 먹이 피라미드에서 맨 아래 식물을 뺀 나머지가 모두 야생동물에 속해요. 여기서 피라미드 한 층이 사라진다면 피라미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무너지겠죠. 그래서 야생동물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로 과학적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은 야생동물의 우수한 능력을 이용해 과학적 발달을 이루었어요.(거미줄의 강도를 모방한 인공거미줄섬유를 이용한 신발,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만든 비행기 등)
세 번째로 휴양 심미적인 가치로 사람들이 야생동물의 아름다움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 야생동물의 매력에 이끌려 등산이나 야영, 탐조, 사진촬영의 취미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에서 동물학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반달곰을 복원하고 동물의 흔적을 조사하고, 새를 관찰하고 있네요.

동물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동물학자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용기가 필요해요. 동물학자들은 밤에 동굴을 조사하거나 동물을 찾아 숲의 이곳저곳을 다녀야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자질이 있으면 좋을까요? 네~ 끈기가 필요합니다. 야생동물이 보

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야생동물의 모습이나 흔적을 끈기 있게 찾아 다녀야 해요. 야생동물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네! 신념이 있어야 하겠죠.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멸종되어가는 동물을 보호하고 복원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로드킬로 죽어가는 동물을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만들자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멋진 동물학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동물학자는 수의학과,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를 선택해 대학에 들어가서 동물과 관련된 공부를 해요.
또 동물학자는 야외에서 야생동물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고 신체운동을 좋아하고 GPS같은 기계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면 더 좋겠요? 그리고 수의사, 생물분류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따서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하면 동물학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밖에서 체험하면서 찾아 볼 동물의 흔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것은 어떤 동물의 흔적일까요? 첫 번째 사진은 먹이를 먹은 흔적이고, 두 번째는 배설물, 세 번째는 발자국이네요. 네! 정답은 멧토끼입니다.
멧토끼는 주로 나무덤불이 우거진 곳이나 풀숲에서 관찰이 되지만 산 아래 풀들이 자라는 곳이나 무덤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 다음 동물의 흔적인데요. 어떤 동물일까요? 이 동물도 초식동물이고 외국에선 물사슴이라고 부를 정도로 물을 좋아해서 물가 근처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맞아요. 고라니였어요. 배설물이 꼭 까만 콩을 닮았죠? 두 번째 사진에 발자국 사진이구요.

다음은 조류인데 조류와 깃털이 서로 위아래 짝이 안 맞아요. 맞는 짝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누구의 깃털일까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3번과 4번은 둘 다 검은색 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4번 깃이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까치, 두 번째는 큰부리까마귀 깃이에요
1번 깃은 길쭉하고 갈색에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꿩 꼬리에서 나온 것 같죠?
2번 깃은 다른 깃보다 상당히 작고, 또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져 있는 깃으로 봐서 오색딱다구리의 깃이네요.

이 사진은 뭘까요? 네, 이 뱀은 북한산에서 제일 많이 출현하는 쇠살모사입니다. 옆의 사진은 뱀의 허물사진이죠. 뱀은 보통 한 해 보통 1~2번 많으면 4번까지 허물을 벗는데 먹이를 많이 먹을수록 금방 자라기 때문에 허물을 자주 벗습니다.

자 다음은 곤충인데 이 곤충의 이름이 뭔지 아나요? 이 곤충은 이름이 뱀허물쌍살벌이라고 해요. 왜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지 옆의 사진을 보면 이해 할 수 있어요. 어때요?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집인데 모습이 방금 전에 봤던 뱀 허물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죠.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직접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조별로, 지도를 보면서 관찰로를 한 바퀴 돌건데요. 관찰로를 올라가면서 숨겨진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서 야장에 어떤 동물의 흔적인지 적고, 배설물인지, 족적인지, 깃털인지 체크하고 허물이나 기타 다른 흔적이라면 기타에 정확한 명칭을 아는 대로 적어주세요. 자 그럼 조를 짜고 조별로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마무리〕 <야외활동 후> 우리 함께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고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땠나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존중하고 배려해야하듯이 우리가 오늘 직접보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만났던 동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 현황사진

	
동물학자 알아보기	동물학자 실습 (체험)

○ 식물학자

식물학자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북한산도봉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경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해설사 ○○○입니다. 도봉산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우이령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지역을 지칭을 하며, 198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봉산의 국립공원 식물학자에 대해서 PPT를 이용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합시다. (실내)[식물학자 소개 & 도입] (체크해봐요!_질문 다섯가지를 순서대로 보여준다._PT) 자유학기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듣고『Yes or No』로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질문하기.~넷째 질문하기. 이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하고 관심이 있다면 우리 모두 식물학자가 될 수 있어요. ▶ 여러분이 식물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전개-① 우리는 식물을 왜 연구할까요?]
식물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곧 식물의 역사라 할 수 있는 만큼 식물은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주어 인류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상나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예시그림을 보여준다._PT) 구상나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유종임에도 사람들의 무지함속에 현재 서양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되었음을 예시로 들어줌. 또한 구상나무의 무한 가능성과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

[전개-② 우리의 잠재적 가치]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_그림판을 보여주며 화살표로 연결해보기_PT)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숨겨진 재능과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엔 그냥 공부 잘 하는 평번한 학생이었겠죠. 이 학생은 나중에 커서 문재인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당차게 생긴 염색한 친구는 손흥민 축구선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유명한 선수지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숨겨진 재능이 다 있어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육을 통하여 여러분의 꿈과 끼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개-③ 국립공원에서 식물학자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
<국립공원 식물학자들이 하는 일>
- 멸종위기식물 등 보호대상종 모니터링
- 보호대상종 자생지 보호시설 설치
- 종자, 생체 등 채집을 통한 유전자원 확보
- 멸종위기식물원(관찰원), 묘포장 조성을 통한 증식시설 확보
- 증식기술 개발(확보) 및 증식
- 서식지 외 보전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자연자원 보호 관련 해설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 식물학자에게 필요한 역량>
- 신념과 용기

[식물학자 체험활동(실외)]
잠깐 휴식시간 후, 밖에로 나가서 체험활동을 해 볼 겁니다.
도봉산에 살고 있는 식물들에 대해서 각 조사지점 마다 각자 조사해 보고 지금 나눠드린 야장을 스스로가 직접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끝낸 후, 이 야장을 바탕으로 조사 지점의 식물들에 대해 서로 발표와 토론을 해 볼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식물생태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북한산도봉산을 돌며 식물학자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식물학자는 우리 삶에서나 국립공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자격증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갖추게 되면 훨씬 꿈을 이루기 쉽겠지요.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을 존중하며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연에 사는 생명들과 나와 함께 공존을 할 수 없겠지요. 따뜻한 감성을 지닌 생명존중의 마음을 가진 식물학자로 될 수 있는 꿈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 식물학자 현황사진

	
식물학자 알아보기	식물학자 실습 (체험)

○ 역사학자

역사학자 시나리오	조금 전(국립공원과 레인저)에 보았던 것과 같이 국립공원엔 아주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이 중 9개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중, 여기 '역사학자' 체험하도록 할거에요. 특별한 시간여행, 국립공원 역사학자체험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해요. 질문을 잘 듣고 '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Yes or no로 대답해보도록 해요. 나는 역사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한다. (Yes or no) 나는 평소에 메모를 잘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했고, 관심이 있다면 우린 모두 역사학자 될 수 있어요. 우리 국립공원에서는 우리의 조상님의 흔적 역시 많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위의 사진을 본적이 있나요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로, 국립공원에 있어요. 바로 경주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립공원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공간이었는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수성을 찾아봅니다. 국립공원에 방문하면 산성 유적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산성을 보고 과거에 성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빈번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월악산덕주산성, 북한산북한산성, 속리산견훤산성, 흑산도의 상라산성) 바다로 둘러쌓여있기에 소식을 전달하기 힘든 단점을 극복하고자 산 정상부에 봉화를 피워 소식을 전하는 봉수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공원은 우리나라의 문화 전반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도서지역까지 뻗어나갔지만 해양민의 토속문화를 그대로 간직해온 공간이기도 하다는 걸,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안 독살, 진도의 다시래기, 한려 금산 봉수대, 금오도망산봉수대)
이렇게 연구하여 국보, 보물 등 문화자원 현황을 종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립공원 역사 현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전체 지정문화재가 712개이고, 천연기념물은 70개 등 문화재가 많지요!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산양이 천연기념물 제217호호이 설악산에서도 살고 월악산에서도 사는 등 여러곳에서 사는데, 이 수치까지 합치면 210개나 됩니다.
또한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폭풍이나 폭우에 의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탐방객이 훼손시키지는 않았는지 지정된 문화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약 1,095건의 비지정문화재가 국립공원구역 안에 있는데요.
아직 연구가 더 되지 않았을 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국립공원역사학자는 문화자원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단 한글자입니다.
바로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돌멩이를 역사적인 중요자원으로 볼 수 있는 눈, 보석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매는 사람보다 4~8배정도 되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욱더 예민한 눈이고,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매와 같은 눈이 필요한데요.
국립공원 역사학자는 이런 매의 눈으로 공원 내 알려지지 않는 역사문화자원을 찾아내거나 역사문화자원의 숨은 의미를 밝혀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진관사라는 절에서 독립운동 자료를 발견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우실(바람막이 돌담)을 유심히 여겨 알게 된 문화자원입니다.
(* 우실: 보통 돌담은 바람을 막아내기 위한 역할로 쌓아져 있는 자연적인 의미가 담겨있지만, 인간계와 신의 경계,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석의 역할을 하는 신앙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옷은 바로 조선시대 15대 임금인 광해군이 입었던 옷입니다. 광해군의 옷뿐만 아니라 부인과 상궁의 옷까지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이 옷이 광해군의 옷이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옷고름에 적힌 작은 한자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자로 '을해생조선국왕수만세' 라는 한자가 적혀있었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 알게 된 것 입니다.
이렇게 역사학자는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또 역사학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신념이에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 조상님들의 문화재를 찾아내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 국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리고 잘 보존하고자하는 신념이 필요하지요.
이를 통해 국립공원에서는 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바뀐 사례가 있답니다.
서울 북한산국립공원 자락에는 어떤 비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15대 임금이었던 광해군이 이해룡이라는 신하에게 상으로 북한산 자락의 주면서 동시에 세워준 비석인데요.
이 비석의 내용은, 이해룡의 땅에서는 절대 나무를 베어내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단순한 글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비석에는 조신시대의 숲을 관리하는 정책

	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에 2014년 서울시 기념물 제 35호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문화재청과 각 문화재가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자원전문가들과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해야 합니다. 국립공원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 하셔야 할 공부는 당연히 역사문화분야겠지요? 따라서 역사관련학과에 진학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까운 미래에 국립공원 역사학자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부하던 학자들은 글공부에도 매진하였지만 여러분도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 노는 것처럼 이들 역시 쉬는 시간에 도봉계곡에 내려와 경치도 바라보고 계곡물에 발도 담그면서 쉬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처럼(인디아나존슨 사진) 계곡 주변에 보이는 커다란 바위에 글씨를 새겨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도 다닐 수 있는 길인데요, 지도를 보고 찾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워크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바위글씨에는 점수가 있습니다. 바위글씨를 찾아 미션지를 작성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모둠나누기, 역할나누기) 체험활동 재밌었나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역사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님들이 남긴 문화자원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들어 문화자원 훼손사례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선사시대와 신라시대에 새겨진 천전리 각석의 경우 돌에 긁힌 낙서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보니 여러분 또래의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러한 역사유적 훼손사례는 외국에도 있습니다만 미국 뉴멕시코주에는 엘 모로 바위라는 거대한 사암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위뿐만 아니라 오랜 옛날 원주민들과 근대의 탐험가들이 바위에 새긴 문자들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미국국립공원관리국에서는 이를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이 각석에 낙서가 발견되었고, 공원관리국에서는 여러 단서들을 통한 추적 끝에 범인을 잡아냅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우리나라 유학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유학생들은 바로 여권을 압수당한채 법정에 서게 되었고, 30,000달러 약 3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법정에서의 진술을 들어보면 더 어이가 없는데요. 왜 낙서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영어를 잘 몰라서, 안내문구를 낙서를 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알았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답변하였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역사문화자원들이 훼손되어서는 안되겠죠.

첨부2 : 현황사진

	
역사학자 알아보기	역사학자 실습 (체험)

○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시나리오	첫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OOO입니다. 우리 학생친구들이 와 있는 국립공원엔 아주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이 중 9개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중, 여기 '특별사법경찰'을 체험하도록 할 거에요. 나는 특별사법경찰의 자질이 있을까? 지금 띄워진 PPT의 내용을보고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해요. 질문을 잘 듣고 '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Yes or no로 대답해보도록 해요. 첫번째, 나는 평소 불의를 보면 못참는다~ Yes or no! 두번째, 나는 학교 친구나 선생님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대처한다~ 세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비논리적인 점을 잘 찾아낸다 네번째, 나는 친구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거나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했고, 관심이 있다면 우린 모두 특별사법경찰이 될 수 있어요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역할 드라마나 뉴스에서 또 우리주변에서, 아님 경찰서에 직접 가봐서 경찰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경찰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등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우리 마을의 질서를 잡아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도 경찰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립 공원에도 경찰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법한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 아름답지 않나요? 남북분단으로 만들어진 비무장지대 DMZ의 양구 두

타연이라는 곳입니다.
이 곳은 지난 60년간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양구 두타연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해, 아름다움이 지켜져 왔었는데... 국립 공원은 어떨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이 와 있는 이 곳, 북한산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자연을 느끼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찾으면 국립공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국립공원으로 오면? 네 맞습니다.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 가스렌지 등으로 담배꽁초에 의한 산불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립공원으로 오면? 네 맞습니다.
쓰레기가 많아져요. 특히 가져가야할 쓰레기인 과일껍질이 동물의 먹이가 될 줄 알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껍질에 농약이 많아서 함부로 버리면 국립공원도 오염되지만 그걸 먹는 동물들도 아프게 되겠죠!

사람들이 국립공원으로 오면? … 네
도토리 등 야생동물의 먹이를 집으로 가져간다.
산나물, 도토리는 야생동물의 먹이인데, 봄 가을에 많이 가져가지요. 그럼 봄. 가을에 먹을 것이 부족한 야생동물 친구들은 쫄쫄 굶어야 되요.

그 외에도 나무를 채취하거나, 야생동물을 몰래 사냥하기도 하고, 지정된 장소 외 취사, 지정된 장소 외 주차 또는 약초를 몰래 가져간다던지, 출입금지 지역에 간다던지,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고, 밤에 산행을 하는 등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을 비무장지대 dmz처럼 아무도 출입 못하도록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보존도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하기 위해 특별 사법경찰이 가운데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을엔 경찰이 있어 마을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특수한 장소인 국립공원 질서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사법경찰은 우리 마을의 지구대 경찰이 국립공원으로 간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 이라 지명을 받고 국립공원의 질서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립공원에 약 500여명 지명받아, 과태료 발급, 고발 등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렇게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은 강인한 체력으로 걸어서 고지대를 순찰하는 것은 물론 이고, 전기순찰자, 말, 전기자전거, 배를 타며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의 일들도 첨단 기계화 되고 있는데요~ 그 예가 무인비행체 헬리캠을 띄우는 순찰 입니다.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면 무인감시시스템이 움직이는 사람을 감지하고, 사진을 찍어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송출하여 확인하기도 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방송하는 지능형 무인감시 시스템이 국립공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탐방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샛길 출입 했을 때 등 현장에서 위법을 발견하고 과태료도 끊을 수 있지만 자연자원을 반출하는 도둑을 잡기도 합니다.
그 예로 국립공원 에서 모양이 예쁜 소나무를 도둑질하는 사람 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나무 도둑을 잡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소나무를 캐어갈 만한 곳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 합니다.

-두 번째, 의심지역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소나무는 무거우니 꼭 차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차량은 관리대장도 작성해 보고 의심지역 차량 통제장치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의심지역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수사하다, 소나무 유출의심 정황 을 포착합니다. 캐어내다 버리고 간 소나무도 뒹굴어 있구요, 밀반출 통로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무인카메라를 돌려보아, 용의자를 적발했으며, 의심차량을 뒤따라가 현장에서 회수한 소나무, 사용 물품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하여 정식 수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훼손되었던 곳을 복구하는 것까지 이상 소나무 도둑을 잡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렇게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즉 과태료를 물게 하고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즉 고발행위도 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실습 준비
역할극을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해요.
첫번째,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위반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건 방금 나눠드린 워크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사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러면 자연공원법 제 27조 제 8호를 위반한 것이고 첫 번째 위반이라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만약 두 번째 위반이라면 과태료가 얼마일까요? 네 10만원이 맞았습니다.
이제 어떤 항목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았으면 두 번째 적발 보고서를 써보겠습니다.

자, 어떤 현장을 발견했나요? 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현장을 발견 했습니다 취사지요? 이건 법을 위반한거 맞나요? 그럼 몇 조 위반 인가요? 워크지에서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알아볼까요? 네 맞아요 법 제27조 제 8호지요!

해당 항목에 표시해봅시다. 그리고 옆 사람이 위 사항을 위반했다고 가정하고 일시, 장소, 위반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보고
서명을 받아봅시다. 주민등록번호 쓰는 곳엔 친구의 정보는 소중하니까, 생년월일로 적어주세요.

먼적 모둠을 나누고 역할을 나눌께요. 모둠별로 위반자 역할을 할 친구 3명, 특별사법경찰을 할 친구 2명, 영상촬영자 1명을 뽑아줍니다.

위반자(3명)는 첫째 국립공원에서 가장 위반하고 싶은 것 정하고, 둘째 위반사항 제스쳐만 취하기(실제 하면 안되는 센스!), 셋째 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하러 오면 적절히 저항하기, 넷째 특별사법경찰이 단합하여 단속을 잘하면 원만히 종료하고 단속이 조금 미숙하면 조금 더 저항하다 단속에 응합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고운말을 쓰고, 친구의 옷을 잡는다거나,
목을 잡는다거나 등 장난치지 않고, 적발됬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2명)은 워크지의 대본 데로 합니다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근무자세 갖기 ,준비물 챙기기, 위반사항
사진 찍기(멀리서 신속하게), 공단신분증 및 특별사법경찰 지명서를 공손하게 제시하며 자기소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고 신분증 확인하고
적발 보고서 쓰기

특별사법경찰도 꼭 지켜줘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잡으려고 뛰지 않습니다.
둘째, 의연하게 편한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봐주는 건 없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앞에 준비된 준비를을 챙겨요
용모단정한 모습으로 정복을 착용한 다음, 적발보고서, 카메라, 수첩, 신분증, 무전기를 챙깁니다.

마무리 하고 밖으로 나가 실습하기
특별사법경찰 대본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위법행위 발견시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잡는다.

단속직원 소속과 위반사항을 고지한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산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 000입니다” “선생님은 국립공원에서 금지된 취사행위를 하였으며 자연공원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신분증 확인 후, 적발보고서 작성, 서명을 받는다”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현재 공무집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동안 PPT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공부 했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각 모둠과 역할을 나눠 가상의 위법행위를 단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상황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공유하며 어려웠던 일, 느낀 점 등 소감발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활동하는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은 자연보존과 사람의 이용의 균형을 맞혀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연과 사람을 모두 배려하는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직업이 될 수 있음을 알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첨부2 : 현황사진

	
특별사법경찰 알아보기	특별사법경찰 실습 (체험)

○ 안전관리전문가

안전관리전문가 시나리오	여러분을 지켜요!!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Yes or no로 대답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평소엔 몸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둘째, 나는 재난과 관련된 영화를 즐겨본다~ 셋째, 나는 평소에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핀다. 넷째,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보람을 느낀다. 이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했고,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 안전관리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나 신문을 통해 국립공원내 일어난 사고를 접하고 국립공원 직원이 구조한 사례를 본 적이 있죠? 우리 국립공원에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히 구조하는 안전관리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산과 같은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등산은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지만 자연 속 활동인 만큼 주변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가는 이러한 위험한 요인들을 조사합니다.

국립공원의 위험한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폭우는 바로 계곡범람으로 이어지며, 자주 발생하는 태풍이나 폭풍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밤낮의 기온차이가 커지면서 밤이 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무리한 산행은 바로 저체온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폭설로 인해 눈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안전관리전문가는 폭우 또는 얼음이 녹거나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일어나는 낙석과 산사태지역을 조사하고, 번개로 인한 감전에 대비하기도 하며, 위험한 지형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체격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추락 심지어 심장돌연사의 위험까지 조사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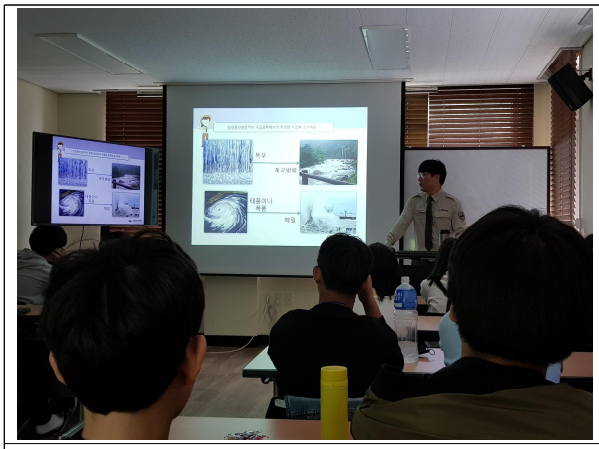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전문가는 안전한 탐방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산행을 위한 앱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국립공원 현장에서는 사전에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우량경보시설과, 기상관측시설, 재해문자전광판을 운영하며 탐방객들에게 알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산행방법에 대해 탐방객들에게 교육하기도 하며, 낙석이 생기기 쉬운 곳에서는 직접 출동하여 낙석을 제거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구조를 위한 평소 구조 훈련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탐방객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더 큰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진화에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라고 하면, “구조 활동은 소방서에서 하지 않나? 굳이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119 구조대원들도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의 험준한 산악지역과 도서지역까지 119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립공원의 지리와 지형을 잘 알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립공원만의 안전관리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안전관리전문가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정지가 일어난 탐방객에게 할 수 있는 응급조치(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고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상황파악부터 신고, 응급조치까지 바른 절차에 맞게 역할극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인근에서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고 산불진화장비를 사용해보는 산불진화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로프 매듭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보겠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안전 지킴이입니다.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는 무엇을 살릴까요? 바로 생명을 살립니다. 안전관리전문가는 강인한 체력으로 국립공원의 대자연을 누비며 탐방객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접근하기 힘든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묵묵히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필요하지만 생명을 구해냈을 때의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관련 분야의 공부를 하고 또한 관련학과에 진학하여 관련된 자격증을 갖추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꿈을 잡을 수 있는 시작이 되고 또 국립공원을 지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2 : 현황사진

	
안전관리전문가 알아보기	안전관리전문가 실습 (산불진화체험)

○ 환경교육전문가

환경교육전문가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2시간동안 자연과 인간의 중립자 역할을 하는 환경교육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접 환경교육전문가가 되어 포스터를 만들고 관련 해설시연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실내에서 PPT로 환경교육전문가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환경교육전문가의 인터뷰, 그리고 해설시연 등을 감상해 볼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립공원에는 아주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9개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 여기 '환경교육전문가'를

체험하도록 할 거에요.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해요. 질문을 잘 듣고 '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Yes or no로 대답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동물이나 식물을 잠시 길을 멈추고 관찰한 적이 있다! Yes or no!
두 번째, 나는 쓰레기를 버리는 친구에게 버리지 않도록 안내한다.
세 번째, 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다
다음 나는 친구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거나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했고, 관심이 있다면
우린 모두 환경교육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네 장의 사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이 탐방객과 학생들에게 무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여기 이분들은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들이에요. 산에 온 탐방객들에게 자연경관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여기 선생님처럼 우리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공부도 가르치고 자연놀이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국립공원의 환경교육전문가를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환경교육전문가는 탐방객들과 동행하며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와 유래 등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심신의 건강을 위해 등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내가 오르는 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들으며 오른다면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산행이 될 수 있겠죠?

사진이 정말 아름답죠? 이곳은 남북분단으로 만들어진 비무장지대의 두타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난 60년간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이 와 있는 이 곳, 북한산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두타연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해, 아름다움이 지켜져 왔었는데, 국립공원은 어떤가요?
이렇게 많은 국민이 자연을 느끼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국립공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분별한 이용으로 국립공원이 아프게 됩니다.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길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땅 속에 있던 나무뿌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물이나 도토리 등 동물들이 먹어야 할 식량인 국립공원의 자원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누가 단속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 훼손하지 않도록 환경교육전문가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연을 지켜야 하는 것 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1. 공기 정화 기능

2. 맑은 물
3. 동, 식물의 부재로 인한 식량부족 등등
그리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뛰놀며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힐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는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자연이 주는 많은 선물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한답니다.
그럼 국립공원 환경교육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국립공원과 자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찾아가 알리기도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교육,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교원직무연수' 등 생태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만들고, 환경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엽니다. 지난 9월 8~9일에 도봉산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알고있나요? 매년 초가을에 열리는 행사니까 가족들과 함께 참가해 보세요. 도봉산 관찰로를 돌면서 해설을 들을 수도 있고 각종 부스에서 이런저런 만들기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태관광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에 쥬니어 레인저라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2달 정도 진행했습니다. 매 주 토요일에 와서 함께 봉사도 하고 생태 체험도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였습니다. 성실하게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봉사점수도 지급되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내년에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요. 이건 선생님이 겪은 일화인데요, 처음 자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식물의 생김새와 이름을 외우고 매치하는 과정이 지겨울 때가 있었어요. 그 때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석했었는데 강의 해 주시던 선생님이 굴참나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동안 저는 굴참나무를 책에서 '잎모양이 길고, 뒷면이 회색빛을 띄는 표면이 울퉁불퉁한 나무'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나무 나이가 40년이 지나면 나무 껍질을 코르크마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와인이나 유리병을 막는 그 까칠한 느낌의 코르크 마개요. 그러면서 직접 나무 표면을 만져봤는데 뭔가 푹신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 순간 정말로 마치 큰 코르크마개를 만지는 기분이였어요.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굴참나무만 보면 바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게 깊게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저 저 나무는 뭐뭐야~ 저 꽃은 뭐야~ 단순하게 이름과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식물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예를 들면 꽃말이나 전해 내려오는 유래, 그리고 쓰임새 등에 접목 시키면 자연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배우는 즐거움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환경교육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죠? 자유학기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일 기획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여러 방법으로 확보를 하고, 보도 자료를 내는 등 홍보를 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 모집이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리고 설문 등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는 국립공원 환경교육 전문가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000이에요. 여기서 0000은 뭘까요?

네,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국립공원 환경교육 전문가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을 배려하고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징검다리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전문가는 000을 잘 맞추어요.
뭘까요?
네, 환경교육 전문가는 눈높이을 잘 맞춥니다.
어린이와 있으면, 어린이 수준에 맞게, 청소년과 있으면 청소년에 맞게, 노인들과 있으면 노인에 맞게..
이렇게 많은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눈높이을 잘 맞춥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환경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대학교에 생물학과 환경학과, 산림과학과 등 동식물에 관한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친화적인 능력과 자연을 보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자질을 갖추었다면 자연환경해설사나 숲해설사, 교원자격증 등 자격증을 따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사해 환경교육 전문가로 일을 하면 된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함께 환경교육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수업으로 우리 친구들이 환경교육전문가를 꿈꾸지는 않더라도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자연을 지키는 행동을 실천 할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연은 우리 곁에 있을 때 지켜야지, 파괴 된 후에는 복구하는 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친구들 모두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2 : 현황사진

	
환경교육전문가 알아보기	환경교육전문가 실습 (체험)